



김유택

상무

idea bank

SAMSUNG 삼성물산

안전환경의 아이디어뱅크
건설업에 투신한 1976년 이래 30년 가까이 오직 건설업 한 직종에 인생의 승부를 걸고 일하고 있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김유택 상무. 1994년 철도청장 감사장을 비롯해 1998년 건설교통부 표창, 2000년 법무부 장관 표창, 2003년 국무총리 표창 등의 수상 실적이 말해주는 성실함과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김유택 상무. 그의 완벽한 안전·환경 활동을 재발견 해본다.

2002년 삼성물산 건설부문 안전 환경 팀 팀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안전 환경 분야 아이디어뱅크로서 전력을 다해 이룬 김유택 상무의 업무실적.

• 건설업 최초 6시그마 기법 적용을 통한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 건설업 성장둔화, 정책 및 여건 변화, 고객니즈의 다양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경쟁력과 고객만족 실천요구의 증대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혁신 활동으로 건설업 최초로 6시그마를 도입하여 건설업의 특성에 맞는 기법 개발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가치체계를 정립하였으며, 특히 6시그마 주요추진 과제로 안전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객관적, 과학적 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 및 적용으로 안전관리 효율향상 및 사고저감에 크게 기여함

• 해외 선진 사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안전경영시스템 도입

- 2003년 4월 일본 대성건설, 시미즈 건설 등 선진사 벤치마킹 실시
- 2003년 10월 삼성 OHS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 객관적 Risk Assessment(위험성 평가)을 통한 중점위험작업 집중관리
 - 안전평가 제도 개선, AUDIT 시행, 정도경영 및 표준화 실천 등 안전경영체제 개선, 정착으로 재해율 저감(2003 : 0.43 → 2004년 : 0.23)
 - 안전경영방침, 안전보건 규정, OHSMS 시행규칙, 작업안전지침 수립

• 삼성 OHSMS(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 Plan : 전사, 본부, 현장, 협력회사는 일관된 안전보건방침 및 중점계획을 수립하고
- Do : 전 임직원, 협력회사, 근로자는 작업표준과 프로세스를 철저히 준수하며
- Check : 이행여부에 대한 안전감사(Audit)를 실시하여
- Action : 지속적으로 프로세스 및 작업안전환경을 개선함으로써
-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는 체계적인 경영활동

• Risk Assessment에 의한 중점위험작업 집중관리를 통한 중대재해 저감

- 최근 5년간 당사 사고를 작업별, 기인물별, 작업장소별 분석을 통하여 위험성을 정량화하고 동업타사 대형사고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 작업의 위험도를 우선순위 화하고 중점위험작업을 선정, 집중관리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저감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규정하여 적용함
- 중점위험작업 사전신고제, 특별 audit, 작업안전지침 작성 · 활용
- ※중대재해 감소추이 - 2003년 : 14건 → 2004년 : 7건 → 2005년 : 5건

• 국내 건설업 최초 “근로자정보관리시스템(WIS)” 도입

- 2001년 5월 건설업계 최초 근로자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신규채용자에 대한 출력 및 작업현황, 안전 교육, 건강검진, 개인보호구 지급 등을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인 근로자 노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한 정책 개선으로 국내 건설안전 및 환경분야의 발전에 기여

- 2001년 ~ 2005년까지 1군 건설사(100대) 안전부서장이 회원인 건설안전협의회 회장, 안전학회 이사, 건교부 건설안전 기술위원 등을 역임하며 정보 교류, 안전관리기법 개발,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을 적극 주도하여 건설안전 분야의 발전에 혁혁히 기여함.
- 건설업 재해율 산정기준 및 PQ신인도 개선 추진 → 재해율 조사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실질적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하청 재해의 원청 산입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재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평가수단을 다양화하여 기업의 사전예방활동 시스템 확립을 유도함.
- 2005년 노동부 사망재해예방 T/F팀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망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사고다발 공종별 구체적 안전대책을 제시하여 재해 근절을 위한 Hi-Five 운동을 전개하는데 일조함.
- 건설환경 협의회 활동을 통한 환경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참여
 - 2000년 7월 : 건설폐기물 재활용방안 건설업계 의견 제출(대한건설협회)
 - 2002년 7월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참여
 - 기타 폐기물 분리 발주 및 환경관리비 계상 관련 의견을 제출하여 관련법을 개선에 기여함.

• 실천하는 품질·안전 캠페인 시행으로 건설현장 안전의식 제고

- 무재해기 릴레이 운동 및 품안이 사랑 캠페인 시행
 2004년부터 매년 무재해기 릴레이 운동을 시행해 본사, 현장, 협력사에 공통된 무재해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소속감과 안전의식을 고취하였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품안이 사랑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시행하여 화장실, 샤워실, 숙소 등 근로자의 복지를 개선시킴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에 노력함.
- 시공 및 기술 표준화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 저감
 수행중인 시공단계를 표준화함으로써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 원가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내 표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5년부터 매년 표준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임직원 및 협력사의 품질경영 의식을 제고하였음.

이상에 열거한 업무실적 이외에도 김유택 상무는 국내 건설업 최초로 건설안전체험교육장을 도입했으며, 지난 2002년 12월 사이버 품질·안전·환경교육 과정 또한, 국내 건설업 최초로 개설해 품질경영 시스템의 기본과 원칙 재정립 및 품질·안전의식을 제고하여 기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재해자 안전강사 및 웃음안전교육을 도입해 근로자에게 건강한 웃음을 통하여 현장의 안전과 개인건강을 인식하고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직무교육 체계화로 실질적 교육효과를 향상 시켰으며, 협력사 품질경영 지원을 통한 상생경영을 실천 하였다.



◀ 안전 활동 아이디어 회의 중인 품질경영 본부장 최경렬 전무, 품질안전팀장 허진욱 상무, 김유택 상무(우측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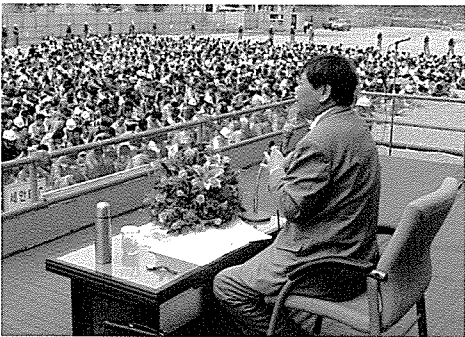
▲ 무재해기 출정식 장면



▲ 우리협회 안무영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과 대담중인 김유택 상무



▲ 각 현장에 운영 중인 체험교육장



▲ 재해자 강사 초청 교육 광경

불우이웃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김유택 상무는 30여년간 장애인을 위한 봉사 및 불우(비행) 청소년을 위한 선도활동 등 헌신적인 사회봉사 활동으로 2000년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및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사내외에서 불우이웃을 위한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다. ☺